

셀트리온, 'CT-P17' FDA 허가 획득... 7월부터 美 판매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고농도 제형 진출 관심 높아져 휴미라, 전년 27.6조 매출 기록 美 시장서만 글로벌 매출 87%

셀트리온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CT-P17'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23일(현지시간)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를 통해 유프라이마는 류마티스관절염(RA), 염증성장질환(IBD), 건선(PS) 등 오리지널 의약품인 휴미라가 보유한 주요 적응증들에 대해 7월부터 미국 내 판매가 가능해진다.

유프라이마는 저농도 대비 약물 투여량을 절반으로 줄인 고농도 제형으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시트르산염

(구연산염)을 제거한 것이 특징이다.

아달리무맙은 미국을 중심으로 고농도 제형으로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어, 고농도 제형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진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의약품 시장조사기관인 심포니헬스와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달리무맙의 약 85%는 고농도 제형이 차지하고 있다.

휴미라는 블록버스터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지난해 기준 약 212억3700만 달러(약 27조6081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특히 최대 시장으로 꼽히는 미국 시장에서만 글로벌 매출의 87% 이상인 약 186억1900만 달러(약 24조204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셀트리온은 유프라이마의 글로벌 공

급을 담당하는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통해 미국 내 시장 점유율 조기 확보에 힘쓰는 동시에, 유프라이마의 추가 경쟁력을 확보해 차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미국과 유럽에 유프라이마와 휴미라 간 상호교환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 임상 3상 시험 계획(IND)을 승인받고 임상을 진행 중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품목허가를 통해 유프라이마가 아달리무맙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고농도 제형 바이오시밀러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셀트리온헬스케어와 협의를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미국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동국제약, '정맥순환장애 캠페인' 진행

동국제약이 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정맥순환장애의 방치율을 낮추기 위한 '센시아와 함께하는 정맥순환장애 바로 알기 캠페인'을 알리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혈관 진료특성화로 국내 최고 병원 도약”

이대서울병원 개원 4주년 기념식

부동의 전국 1위 응급의료센터 뇌·동맥혈관병원 차례로 열어

이대서울병원이 지난 23일 병원 우복희 홀에서 개원 4주년 기념식을 열고, 혈관 진료분야 특성화를 통해 국내 최고병원으로 도약하겠다고 다짐했다.

임수미 이대서울병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내 최초 기준병실 3인실, 전 중환자실 1인실로 문을 열며 주목을 받았던 이대서울병원은 지난 4년 간 성장을 거듭해 왔다”라며 “그 결과, 서울 서남권 제1의 뇌혈관 진료실적, 필수의료인력의 교수가 모두 병원에 상주하는 병원, 부동의 전국 1위의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병원이라는 명성을 얻었다”며 지난 4년을 돌아봤다.

서울서남권을 대표하는 대학병원으로 자리매김한 이대서울병원은 급성혈관질환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



지난 23일 열린 이대서울병원 개원 4주년 기념식에서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김은미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등 외빈들과 유경하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하은희 이화여자대학교과대학장 등 병원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기 위해 최근 이대혈관병원을 설립했다. 이대뇌혈관병원이 5월 22일 진료를 개시한데 이어 6월 중순에는 이대대동맥혈관병원이 문을 연다.

이대서울병원은 진료특성화와 전문화를 통해 국내 최고병원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임 병원장은 “혈관질환 치료분야에서 축적된 풍부한 임상경험과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혈관 치료하면 이대혈

관병원’라는 공식이 세워져 이대서울병원의 브랜드 파워를 높이는데 일등공신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대서울병원의 잠재력은 아직 폭발하지 않았다. 철저한 감염관리, 고난이도 중증질환 특화, 스마트병원의 대표주자로 손꼽히는 이대서울병원은 현재의 상승에 만족하지 않고 도약의 기회를 자양분으로 더 높게 날아오를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세경 기자

더카페

‘세이 치즈’ 주제로 선보는 애슐리커피 시즌 신메뉴

이랜드이츠의 ‘더카페’(THECAFF)가 애슐리커피와 협업한 치즈 시즌 신메뉴를 출시한다.

‘세이 치즈’(Say Cheese)를 주제로 선보이는 더카페의 치즈 시즌 신메뉴는 치즈 음료 3종과 치즈케이크 1종으로 구성된다.

대표 메뉴 ‘애슐리치즈케이크프레스치노’는 스무디와 애슐리 치즈케이크가 만난 음료로, 어디서든 맛볼 수 없는 ‘단짠조함’을 선사한다.

함께 출시한 ‘애슐리황치즈라떼’는 크림치즈라떼에 황치즈소스가 더해져 고소함과 달콤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으며, ‘애슐리크림치즈라떼’는 마스카포네 치즈만의 부드러운 풍미를 느낄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던킨, ‘산리오캐릭터즈 미니 파우치’ 3종

도넛 모양 파츠·키링 고리 구성

SPC비알코리아가 운영하는 던킨이 글로벌 캐릭터 기업 ‘산리오’의 ‘산리오캐릭터즈’와 협업해 ‘산리오캐릭터즈 미니 파우치’ 3종을 25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산리오캐릭터즈 미니 파우치’ 3종은 산리오의 인기 캐릭터인 ‘마이멜로디’, ‘쿠로미’, ‘시나모롤’의 얼굴 모양을 그대로 활용한 귀여운 미니 파우치로, 캐릭터별 특징에 맞춘 도넛 모양의 파츠와 키링 고리가 함께 구성되어 있다. 블루투스 이어폰, 동전 등 작은 소지품을 수납할 수 있는 파우치이다.

‘산리오캐릭터즈 미니 파우치’는 오는 25일부터 전국 던킨 매장에서 1만 2000원 이상 구매 시 4500원에 구입 가능하다. /신원선 기자

던킨은 이달 초부터 ‘산리오캐릭터즈’와 협업한 굿즈를 선보이고, 사전 예약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첫 번째 굿즈인 ‘산리오캐릭터즈 멀티 케이스’에 이어 출시하는 ‘산리오캐릭터즈 미니 파우치’는 지난 18일 실시한 사전 예약 프로모션에서 예약 수량 전량이 당일 매진되며, 24일까지 진행하려던 사전 예약 프로모션이 조기 마감되는 등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비알코리아 던킨 관계자는 “이번에 선보이는 산리오캐릭터즈 미니 파우치는 작은 소지품을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키링이나 가방 고리로도 활용할 수 있는 굿즈”라며 “이달 초 선보인 산리오캐릭터즈 멀티 케이스에 이어 이번 굿즈에도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원씽, 남성 위한 편리한 피부 관리 제품

‘포맨 올인원 2종’ 출시

애경산업 자회사인 ‘원씽’(ONE THING)에서 피부 관리에 신경 쓰는 남성들을 위한 ‘포맨 올인원 2종’을 출시했다.

원씽 포맨 올인원 2종은 땀으로 인한 피지 분비와 잦은 면도 등으로 인해 민감해진 남성 피부를 관리해주는 제품이다. 특히 번거로운 화장품 사용 단계를 줄여 간편하면서도 경제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원씽 포맨 올인원 2종은 남성들의 건강한 피부 관리를 위해 피부 보습에 효과적인 ‘포맨 올인원 수분 에센스’,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한번에 케어가 가능한 ‘포맨 올인원 데오 위시’로 구성됐다. 원씽 포맨 올인원 수분 에센스는 건



원씽(ONE THING), 포맨 올인원 2종.

조하고 민감한 남성 피부에 맞춰 토너, 로션, 에센스, 크림을 한 병에 담은 4in 1 효과의 기초화장품이다. 미네랄이 풍부한 ‘제주 용암 해수’를 40.7% 함유해 피부 수분 및 영양 공급에 도움을 준다. 또한 자극 받은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판테놀’과 피부 보습에 효과적인 ‘3중 히알루론산’ 등을 함유해 피부결을 촉촉하게 관리해준다. /이세경 기자

비타민 함유된 ‘박카스맛 탱글 젤리’

동아제약, ‘디몰’서 출시 기념 행사

동아제약은 박카스맛 탱글젤리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선보인 박카스맛 탱글젤리는 상품 명 그대로 탱글한 식감이 특징인 젤리로, 1봉지(40g)당 콜라겐 350mg과 비타민 B군 3종(B1, B2, B6)을 함유한 프리미엄 젤리다.

동아제약은 박카스맛 탱글젤리 출시를 기념해 공식 브랜드몰인 ‘디몰’(Dmall)에서 선착순 2000명을 대상으로



동아제약 ‘박카스맛 탱글젤리’.

배송비 3000원만 지불하면 박카스맛 탱글젤리 2봉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세경 기자

스타벅스, ‘랜더스벅 유니폼’ 재출시

큰 인기에 판매 수량 1000장 늘려

스타벅스코리아가 오는 26일 SSG 랜더스 구단과 협업한 ‘랜더스벅 유니폼’을 재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4월 출시한 ‘랜더스벅 유니폼’은 스타벅스 고유의 그린 컬러인 그린/스트라이프와 민트 2종으로 다양성을 높였다. 지난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인천SSG랜더스필드에서 진행된 ‘스

타벅스 데이’ 행사 당시 선수단이 ‘랜더스벅 유니폼’을 직접 착용하고 경기를 진행해 야구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스타벅스는 5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스타벅스 앱 내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랜더스벅 유니폼’을 2차 판매한다. 지난 1차 판매 수량보다 1000장 증가한 총 2000장을 선보인다. /신원선 기자